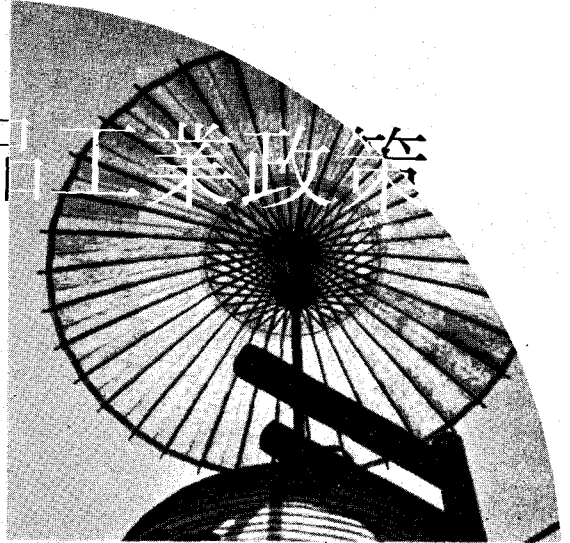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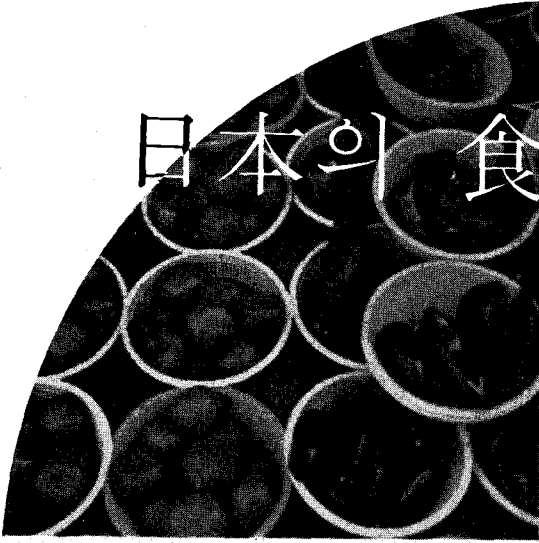


日本の 食品工業政策



食品工業에 對한 施策의 方向

許 銘

保社部 食品衛生審議委員會委員

1. 企業活動과 行政의 方向

일반적으로 經濟의 效率의 發展은 企業間의 적정한 競爭을 통하여 達成되는 것이며 이러한 思考方法으로서는 行政은 安이하게 企業活動에 介入하는 일 없이 競爭原理가 적정하게 機能할 수 있는 環境條件의 整備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業種에 따라서는 産業에 놓여진 조건에 의하여 특정된 방향에의 政策의 誘導를 도모하는 것이 해당업종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한 經濟의 效率의 發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行政関與

의 程度 및 手段은 個個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은 단 순한 中立者가 아니고 指導, 金融, 稅制等의 措置에 의하여 企業활동에의 參與를 해야 할 것이다.

例컨데 中小企業에 관해서는 中小企業基本法에서 나타나고 있 듯이 중소기업의 經濟的, 社會的,

制約에 의한 不利點을 시정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자의 자립적인 노력을 조장하고 企業間의 生産性 等の 諸格差가 시정되겠끔 중소기업의 生産性 및 去來條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취지에 따라 현하 中小企業近代化 促進事業 기타의 중소기업업시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강화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경쟁때문에 총체적으로 設備過剩의 상태에 있어서 「코스트」分割 그대로 추진하는 등 構造改善을 추진하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業界 自体에서 그 계기를 포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業種 혹은 貿易資本自由化의 진전에 대응하여 조금하계 内外의 企業力格差를 시정하기 위한 近代化, 構造改善을 필요로 하는 業種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유도에 의한 근대화구조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특히 사회적으로 크나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食品添加物 등의 食品 衛生問題 혹은 標示의 適正化問題에 관해서는 國民의 保健保持나 消費者 保護를 위한 필요한 규제 혹은 기업활동상 지켜야 할 最低線의 「룰」 保持라고 하는 견지에서의 규제로서 행정이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行政이 企業活動에 關與하여 誘導를 하는 경우 行政目的에 따른 企業의 自主의 意慾的, 活動이 추진되어서 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는 收容體制가 業界團體 등을 통하여 정비되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면 않된다.

2. 食品工業에 對한 施策의 方向

食品工業의 近代化, 合理化를 추진하는데는 특히 食品工業에 통하는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제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적절한 시책을 강구함과 함께 各 業種의 실정에 부응한 시책의 방향을 검토하여 적절한 업종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對策을 講究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衰勞를 방지한다고 하는 受身의 자세에 끝이지 않고 食品工業의 國際競爭力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특히 食品工業에 있어서는 「코스트」가운데 原料費比率이 높고 原料問題가 크나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의 安定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國內 農林水産業에 대한 생산대책에 있어서 加工原料의 생산합리화라고 하는 견지도 강화하는 한편 國內농림수산업의 保護育成的 견지에서 취해지고 있는 제제도에 관해서도 식품공업의 近代化, 合理化의 추진이라고 하는 관점을 포함 그 改善, 合理化를 도모할 것.

타산업에 비교하여 低位에 있는 技術水準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식품공업의 近代化, 合理化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이며 특히 勞動力不足에 대응한 省力化技術의 개발도입이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新製品의 개발등을 중시한 기술개발의 강화등 효과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

需要圈에 적용한 기업의 적절한 배치 및 원료수송이나 하역의 합리화 등을 통한 식품공업의 근대화를 도모함과 함께 公害問題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견지에서 食品工業地의 적정한 形成

誘導를 도모하는 등 立地의 適正化施策을 강구할 것.

장기적 관점에서 식품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消費者의 면에서 하는 食品의 品質向上標示適正化 등의 시책을 강화할 것.

食品販賣의 広域化, 大型化 등 유통사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것을 한층 합리화하기 위한 유통 施策을 강화할 것.

國內의 식품공업의 후진성과 식생활의 洋風化등에 의한 시장의 장래성에 着眼한 외자진출의 강화만 가능한 대응성에 대처하여 企業體質의 강화, 수요동향의 적정등의 외자대책을 강화할 것.

특히 식품공업의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노동력 부족의 진행에 대응하기 위한 上記한 技術이나 立地등에 관한 諸 施策의 충실강화와 병행하여 勞務管理의 근대화나 勞動環境의 整備등에 관해서도 各 企業이 격별한 노력을 하겠끔 행정면에서도 적극적인 지도협조를 하고 있다.

食品工業에 對한 各種 施策의 方向과 當面的인 具體策

1. 類型別의 近代化 合理化 施策의 方向

食品工業의 近代化, 合理化, 施策은 그 개개의 業種이 자기 産業으로서 발전의 정도 成長性, 業界構造 등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서 各 業種 異질적으로 동일한 施策目標 및 수단을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업종을 任意대로 類型으로 분류하고 이 業種類型에 상응한 적절한 구체적 시책의 방향을 발견하는 방법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식품공업을 다음과 (1) 같은 유형으로 나누고 그것에 적용할 시책의 방향을(2)와 같이 考察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것은 일반론으로서 업종별의 構造改善 등의 시책을 생각하기 위한 유형화이지만 식품공업 가운데서 일부의 裝置型 業種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그 創意와 研究에 의하여 製品의 高級化 專門化 등 독자적인 활동분야를 확보하고 경영의 안정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食品工業의 類型

1. 大企業 集中型 業種

小數의 大企業에 생산이 고도로 집중하여 소위 고도한 寡占狀態에 도달하고 있다든가 혹은 그와같은 상태에 도달함에 있다는가 현재 중소기업이 잔존하고 있으며 그것에 관하여 금후 중소기업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은 객관적으로 보아 반드시 용이하지 않는 업종 예컨대 精糖, 大豆 製油 등.

(2) 類型別 施策의 方向

1. 大企業 集中型 業種

이 유형에 있어서는 寡占企業間의 유효적인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만 이 型의 업종에는 과도한 경쟁에 의한 設

備投資가 과도하고 무질서하게 이루어 진다는것 등 소위 過當競爭狀態에 陷入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업계의 設備投資의 조정이나 業務提携, 合併推進 등에 의한 과당경제상태 시정에 관하여 行政誘導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필요에 따라 金融이나 세제상의 優越措置 등의 創設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금후의 문제로서 특히 貿易資本의 自由化의 進展에 대응하는 條件이 있으면 企業合併의 적극적 추진 등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独占禁止法의 運用 등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나오지만 食品工業의 경우에는 「메이커」가 末端流通段階까지 寡占의 支配를 관철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없고 이와같은 경우 「메이커」 단제에서 寡占에 의한 弊害에 관해서 他의 業種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適當한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原料에 관한 諸問題와 施策의 方向

가. 食品工業에 있어서 原料問題의 特質

食品工業은 他産業과 비교하여 原材料費率이 높기 때문에 원료의 조달이나 가격의 문제는 그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나. 近年에 있어서 食品공업의 성장과 원료면의 諸問題,

문제점으로서는 近年의 식품의 수요구조의 변화 즉 가공식품의 분야에서 洋風食品, 畜産食品 및 嗜好食品 등의 수요의 신장이 현

저한데 대응하여 원료를 공급하는 農林水産分野에 있어서도 생산구조나 出荷體制 등의 면에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그의 대응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원료가격의 上昇, 輸入依存率의 上昇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原料에 관한 施策의 方向

가. 基本的인 方法

금후 食品工業의 원료문제를 검토할 경우 종래와 같이 단순한 農政의 附隨인 문제로서 식품공업을 취급한다고 하는 관점을 개정하여 식품공업을 주체로 한 원료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農業人口의 減少, 原料農産物 輸入의 急増, 加工食品에 대한 貿易自由化의 요청이나 資本自由化의 진진이라고 하는 객관적 정세의 고조는 식품공업의 원료문제를 단순히 農業保護만을 중시하는 사고방법에서 배려한다는 종래의 자세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가하고 있다.

또한 生産性 향상의 가능성 國際的 需給의 전망에 따라 輸入에 의존해야 될 것은 國內生産의 轉換을 추진하는 등 選擇的, 重點的, 保護主義로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農業의 특성으로서 生産「코스트」의 절감이나 作附轉換이 곤란한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原料入手面의 「핸더캡」을 가지는 식품공업에 대하여 過渡的 조치로서 특별한 援助를 도모하는 施策을 강구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